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사무관 강균상	042-481-8180
	2016년 11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7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 최우수상에 (주)메덱셀, (주)동아일렉콤 수상 -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2016년 11월 8일(화) 오후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 이번 시상식 개최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주)메덱셀, (주)동아일렉콤 등 총 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20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수상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주)메덱셀, (주)동아일렉콤
- 특허청장상 :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매그스위치 테크놀로지 코리아(주)
-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그린루브 주식회사, (주)다이아벨, 파워테크 주식회사, 유버주식회사, (주)고영테크놀로지

○ (주)메텍셀은 '15년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특허교육을 실시하여 특허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주)메텍셀은 2000년 이후 15년간 지식재산권이 실용신안 2건에 불과 하였으나, '1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특허 5건, 실용신안 2건을 출원하였으며, 현재 특허 3건, 실용신안 1건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를 중국 회사와 공동생산·판매하는 MOU를 체결하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을 유럽 의료기기회사와 기술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매출상승의 돌파구로 활용함으로써 '15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동아일렉콤은 '14년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35건의 특허를 등록을 하였으며, 총 1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특허출원을 장려 하기 위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직무발명을 생산현장에 적극 활용 하여 매출 확대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전체 매출액의 20%인 약 300억원의 매출을 직무발명을 통해 달성하였다.

□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 이라는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 사용자와 종업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번 공모에서 선발된 우수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현장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계획

I 시상식 개최계획

□ 목적 및 내용

- (목적)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시상하여 제도 도입 확산 및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에 기여
- (내용) ‘2016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기업(9개)에 대한 시상 및 기업 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 11. 8(화) 16:00 ~ 18: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15:50~16:00	▶ 등록 및 입장
16:00~16:10	▶ 개회,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10~16:15	▶ 인사말씀 (국장님)
16:15~16:30	▶ 시상식 진행 - 산업부장관 및 특허청장상-4명 (국장님) - 발명진흥회장상-5명 (진흥회 본부장)
16:35~17:25	▶ 우수사례 발표(수상기업 2곳)
17:25~18:00	▶ 기념촬영 및 폐회

II 우수사례 공모 결과

□ 공모 개요

-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연구개발 활동 등에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 공모
- 선정기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일반 기업이 제도를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 선정 방식

-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최근 5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6.7~8.31) 및 심사(10.6)를 통해 총 9개 기업 선정
- 보상규정의 체제 및 심의위원회 등 운영 실적(40점), 보상 실적(40점), IP 조직 및 교육(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및 종합심사를 거쳐 수상 기업의 최종 순위 및 상격 결정

순위	시상	기업명	업체 구분	비고
1	산업부장관상	(주)메덱셀	중소기업	각 300만원
2	산업부장관상	(주)동아일렉콤	중소기업	
3	특허청장상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중견기업	각 200만원
4	특허청장상	매그스위치 테크놀로지 코리아 (주)	중소기업	
5	발명진흥회장상	그린루브 주식회사	중소기업	각 100만원
6	발명진흥회장상	(주)다이아벨	중소기업	
7	발명진흥회장상	파워테크 주식회사	중소기업	
8	발명진흥회장상	유버주식회사	중소기업	
9	발명진흥회장상	(주)고영테크놀러지	중견기업	

Ⅲ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소개

수상자	우수 사례
(주)메덱셀	- 기업 개요 (주)메덱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인슐린 주사기, 펜니들, 인슐린 주입용 수액세트 등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 2015년 3월 2일부터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전담 인력과 전 직원의 지식재산전문인력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 - 우수 운영 사례 15년간 실용신안 2건 등록에 불과했으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1년간 특허 5건, 실용신안 2건을 출원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를 중국 BERPU사와 공동생산·판매하는 MOU를 체결하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을 유럽 의료기기회사와 기술 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매출상승의 돌파구로 활용함으로써 ‘15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음
(주)동아일렉콤	- 기업 개요 주식회사 동아일렉콤은 국산 최초의 전전자교환기인 TDX 전원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전원기술 한 분야를 개발해온 전원시스템 전문 업체임. 2014년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우수 운영 사례 ‘14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특허 35건을 등록했으며, 총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직무발명 성과를 생산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매출액의 20%인 약 300억원 정도를 직무발명 관련 매출이 차지함